

식물요법(Phytotherapy)

구강 및 인후 점막질환

저자 **황완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식물요법을 이용한 구강세정 또는 함수를 하게 되면 점막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고무적으로 국소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 천차만별의 증상이 있어도 식물의 점액질, 배당체, 정유, 고미질 및 탄닌 등의 성분이 증상에 따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꾸준히 구강세정을 하면 동통의 진정 등 자각증상이 개선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개선은 급성 증상 등을 빨리 완화시켜주고, 증상 발현기간을 단축시켜준다. 따라서 함수제는 질병 치료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점액질요법, 염증저지물질요법, 탄닌요법, 강장제요법

구강세정과 가글링(함수)은 구강과 인후의 각종 점막질환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식물요법을 이용한 가글링시 약제가 목의 구석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편도선염에는 별로 효과가 없으며 인후염에도 역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면서 강력한 소독제를 발견해 내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관찰과 경험에 의해 함수제에는 다른 약제가 대체할 수 없는 특이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형적인 측면에서는 정제로서 구강에서 봉쇄되는 것이 구강세정보다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외과적으로는 구강을 수술할 때 항생물질을 함유하는 구강정을 쓰는 것이 알레르기를 야기하고 균으로 하여금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식물요법을 이용한 구강세정은 점막의 청결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식물요법을 이용한 구강세정의 성분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한다.

1. 점액류 식물요법제

우리 주위에는 점액류가 함유된 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점액류는 모두 급성 염증의 경우에 자극을 부드럽게 하고 약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급성의 구강염에 사용하며, 일부 만성화된 인두염의 자극 및 통증의 해소, 연하곤란 등을 수반하는 증상에도 사용한다.

여기에는 주로 아욱의 지상부(Malvae herba) 또는 잎(Malvae folium), 살비아의 잎(Salviae folium), 접시꽃의 뿌리(Altheae radix) 등을 주로 사용하나 점액질이 많이 함유된 무궁화과(Malvaceae)와 해조류의 alginic acid와 같은 점액다당류가 응용될 수 있다.

사용할 때는 주로 단독 또는 혼합하여 다제¹⁾중 전제²⁾로 만들어 투여한다. 주로 환자에게는 전제로서 하루

여러 번 구강을 세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욱>



<접시꽃>



<살비아>

2. 염증을 저지하는 식물요법제

카모밀레는 구강 점막의 급성 염증이나 위축 등에 매우 효과적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따뜻한 카모밀레차로 1시간 정도 흡수를 하면 이러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경우, 혐기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만 구강염이나 점막 위축 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카모밀레 다제와 과산화수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병용하는 경우에는 카모밀레 다제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찻잔 1컵의 카모밀레 다제에 과산화수소 1스푼을 가하여 사용하거나, 카모밀레 다제와 과산화수소를 교차하여 사용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카모밀레>

3. 탄닌류 식물요법제

수렴제는 탄닌을 함유하는 약용식물을 소재로 하며, 만성 증상의 완고한 구내염, 치은염, 흡연자의 타르에 의한 인후염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앞서서 언급한 점액류와 상호 겸용하여 사용하면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점액은 방위층을 만들어 인후 점막을 보호하고 점액선이 위축되어 점액을 생산하지 못하는 점액층을 대신하게 된다.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양지꽃 및 짚신나물의 뿌리를 다제 또는 톨크³⁾로 사용하면 좋다.

1) 다제: 여러 가지 식물성 생약을 혼합하여 말려서 만든 약제

2) 전제: 생약을 달여서 만든 약

3) 톨크: 동식물에서 얻은 약물이나 화학물질을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정제수의 혼합액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만든 액제



<양지꽃>



<짚신나물>

4. 강장제(Tonic)

점막의 무기력 증상, 예를 들어 특히 만성화된 구내염과 위축성 설염 그리고 만성 인후카타르 등의 경우에는 잔류성의 고미질로 함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막은 이 쓴 성분에 의해 반응하며 타액과 점막선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식욕과 흡수력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모든 기전은 고미질이 구강점막을 자극시켜 위액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서양의 Centaurium 초, 조름나물, 쓴풀, 겐티아나근 및 용담이 사용되며 만성 위질환 등에도 이들 생약 추출액을 사용한다. 사용 시에는 주로 차순가각으로 1~2스푼을 물 500mL로 추출하여 가글링한다.

이들 고미강장제는 수렴제와 같이 특별히 다발성의 인후 노이로제 즉, 목에 이물이 있는 느낌 또는 가래가 목에 끼여 있는 느낌에 사용한다. 이런 느낌의 환자는 암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 및 신체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치료해야 하며 동시에 국소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이때는 가능한 한 자극이 없는 무해하고 간단한 식물약제로 치료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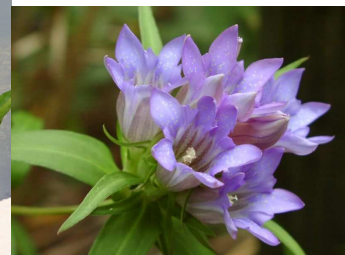
또한 점액의 분비감소 악화가 계속되고 다음으로 타액선의 위축이 계속되면 구강의 이상건조가 오게 되며 이러한 건조성증후군은 매우 기분을 나쁘게 하며 난치성인 경우도 있다.



<쓴풀>



<조름나물>



<용담>

약사 Point

- **점액질요법:** 차스폰 1~2개 양의 아욱의 지상부 또는 잎, 접시꽃의 뿌리를 500mL의 뜨거운 물로 추출한 후 단독 또는 혼합하여 다제의 전제로 만들어 투여하며, 주로 환자에게는 전제로서 하루 여러 번 구강을 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염증저지물질요법:** 카모밀레 다제와 과산화수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병용하는 경우에는 카모밀레 다제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찻잔 1컵의 카모밀레수에 과산화수소 1스푼을 가하여 사용하거나 카모밀레 다제와 과산화수소를 교차하여 사용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탄닌요법:** 양지꽃 및 짚신나물의 뿌리를 다제 또는 티크로 사용하며 양지꽃 뿌리 티크 10방울을 찻잔 1/2컵에 희석시켜 가글링한다.
- **강장제요법:** 차스폰 1~2개 양의 조름나물, 쓴풀, 겐티아나근 및 용담을 물 500mL로 추출하여 가글링한다.

■ 참고문헌 ■

Rudolf Fritz Weib, 1991, Lehrbuch der Phytotherapie, Hippokrates Verlag GmbH

